

입다의 딸과 이피게네이아: 상호매체성으로 읽는 소녀의 희생*

이은애(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인간의 삶은 복합적인 환경의 총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이다. 성서학이라는 학문영역 역시 다른 다양한 학문 분야와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성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틀을 넓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¹ 그 문화적 소통작업은 성서 본문과 해석, 그리고 정치, 사회, 종교 등의 이데올로기와의 상호적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가장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구약성서는 그것이 기록된 고대 사회와 사상과 문화를 잘 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124)

1 성서학과 다양한 문화 영역과의 소통을 통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양재훈, “소통과 융합 시대의 성서학과 문화: 문화,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서학”, *canon & culture* 7(1) (2013.04), 63-101.

러내는 것으로 그 주변의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의 모티브들은 고대 근동의 공통적인 문화권에서 발생, 변화, 발달하면서 기록되었고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중세 이후 기독교 유럽 문화권에서 문학, 미술,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성서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관습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지역,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영역들의 작품들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성서 본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상호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² 그것은 단지 유대교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넘어서 인간 사회와 심리, 공동체와 예술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세계와 시대에서 성서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드러나게 해 줄 것이다.

구약성서의 본문들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 하나는 입다의 서원과 딸의 희생에 대한 내러티브(사사기 11:29-40)일 것이다. 사사인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야웨께 서원을 하고 결국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인신제사를 이교적 제의로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는 그러한 인신제사를 혐오하신다고 말하는 다른 본문(신 18:10; 왕상 17:17; 왕하 21:6)과 불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실제로 입다의 딸이 희생을 당했는지, 또는 야웨가 아닌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 문학비평적, 구조주의적 해석방법과 여성주의적 관점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다.

2 특히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작품 속에 나타나는 구약성서의 여성들에 대한 여성신학적 관점의 연구는 한 사회와 시대가 다양한 문화적 형식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성서적 사건과 인물들을 표현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J. Cheryl Exum, *Plotted, Shot, and Painted: Cultural Representation of Biblical Women*, JSOTSupp. 2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과 자녀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곳곳의 민담 설화에서 발견되는 모티브들을 포함한다. 신이나 악마에게 자신이 만나는 첫 번째 것이나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 그 서원자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서원 모티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모티브 등을 가진 종류의 이야기들은 잘 알려진 것이다.³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에도 인신공양형태의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었다.⁴ 이 논문에서는 구약성서와 그리스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린 소녀, 또는 처녀인 딸의 희생 모티브가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구약성서 본문 안에서 입다의 딸의 희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2. 상호매체성의 관점에서 읽는 딸의 희생

구약성서의 입다의 딸의 희생 모티브는 그리스 신화의 이피게네이아(Iphigeneia) 전설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BC 7세기경 서사시에서⁵

3 아이네이드(Aeneid)에 등장하는 이도메네우스(Idomeneus)는 바다의 폭풍에 붙잡혔을 때 포세이돈에게 약속하기를 자신이 안전하게 땅에 도착한다면 그를 맞이하는 첫 번째 것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 희생물은 그의 아들임이 밝혀지게 된다. W. Baumgartner, "Jephtas Gelübde", AfR 18 (1915), 240-249.

4 2000년 경주 월성 근처에서 10m의 우물이 발견되었는데 신라시대에 우물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그곳에서는 어린아이의 뼈와 동물들의 뼈, 주둥이를 없앤 항아리와 귀신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닌 복숭아 등이 발견됨으로써 통일신라시대에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49061&cid=51704&categoryId=51707>, 2020.5.6. 검색

5 이피게네이아는 BC 7-6세기 '퀴프리아'(Kypria of Stasinus)라는 서사시에서 처음 언급된다. K. Dowden, *Death and the Maiden: Girls' Initiation Rites in Greek Mythology* (London: Routledge, 1989), 9-11.

처음 언급된 이피게네이아와 관련된 전승사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서 하나로 통일시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공통점은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와의 전쟁에 앞서 아르테미스 여신으로부터 항해하기 좋은 바람을 얻기 위해 아울리스에서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이피게네이아를 주인공으로 한 BC 5세기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는 이피게네이아의 운명을 다르게 서술한다.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Iphigeneia in Aulis, BC 405)에서는 이피게네이아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반면, ‘타우리케의 이피게네이아’(Iphigeneia in Tauris, BC 412)에서 아르테미스는 암사슴을 희생제물로 대신하고 이피게네이아는 그녀의 여사제로 삼기 위해 타우리케로 데리고 갔다는데서 출발한다.

되머(Thomas C. Römer)는 입다 이야기의 저자가 이피게네이아 이야기, 특히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나타나는 이피게네이아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사사기 11:30-40의 모호함은 의도된 것으로 그 저자는 이피게네이아의 두 가지 버전을 알고 있었고 함께 결합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입다의 딸 이야기와 이피게네이아 이야기의 플롯은 너무나 흡사하다. 죽임을 당했든지 신에게 바쳐졌든지 그 소녀는 ‘처녀’로 사라졌고 그녀 가족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입다와 아가멤논, 입다의 딸과 이피게네이아 사이의 평행들도 존재한다. 사사기 11장에서처럼 에우리피데스 비극에서 진짜 영웅은 바로 그 소녀이다. 그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자원하여 받아들였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서원을 행하도록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소녀가 애곡하고 다른 소녀들에 의해 기억됨으로써 미래 세대의 기억 속에 살아남게 된다는 주제 또한 비슷하다. 입다의 딸이 나홀동안 애곡하고 다른 소녀들이 그를 기억하는 의식은 비록 구약성서에서 그것이 실행되었다는 증거는 없지

6 Thomas C. Römer, “Why would the deuteronomists tell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OT* 77 (1998), 34.

만 고대 아티카의 12 도시 중 하나인 브라우론(Brauron)에서 4년마다 열리는 소녀들의 축제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⁷

입다의 딸 이야기는 1751년 초연된 헨델의 오라토리오 ‘입다’(Jephtah)에서 재현되는데⁸ 여기서 입다의 딸은 ‘이피스’(Iphis)라는 이름을 가지며 극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지만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처럼 구약성서 사사기의 입다의 딸 이야기는 신화와 비극, 연극과 음악, 미술 등으로 재현되며 서로 영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것은 성서 텍스트와 다양한 매체들이 역사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전승들을 수용하고 변형하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상호매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러티브의 스토리가 다양한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매체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매체성의 관점에서 구약성서의 입다의 딸 이야기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이피게네이아의 이야기의 상호관계와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성서 텍스트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와 의식의 변화에 따른 그 해석의 발달과 변화 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역시 말을 걸어올 것이라 확신한다. 한 소녀의 희생적 죽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공동체적 의미로 전환되어 텍스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화형태의 기억으로 전승되었으며 그 문화적 기억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딸의 희생, 또는 소녀의 희생적 죽음이라는 공통적

7 Thomas C. Römer, "Why would the deuteronomists tell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35-36.

8 그 가사는 사사기 11장과 George Buchanan의 서약(The Vow, 1554)을 참고하여 Thomas Morell 목사가 작성하였다.

인 소재를 다루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의 다양한 문학 형태들을 함께 연구하기 위하여 상호매체성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상호매체성(intermediality)은 문학, 예술 등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오늘날 다양한 영역과 맥락에서 넓은 의미로, 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사건들을 재현하는 내러티브의 스토리는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매체적인, 매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것을 담는 매체에 따라 제약과 변용을 겪는 매체 의존적인 성격도 띈다.⁹ 상호매체성은 서로 다른 매체 사이(inter-)의 상호 연관성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연관 방법에 따라 매체 융합, 매체 조합, 매체 간 지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⁰ 이 ‘상호매체성’ 개념 안에는 또한 ‘트랜스매체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즉, 매체 경계를 유지하며 관계적이고 교섭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좁은 의미의 ‘상호성’(inter-) 뿐만 아니라 매체 간의 경계를 넘고 상호 침투하는 역동적이고 과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트랜스성’(trans-)을 포함한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방법은 성서 본문과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작품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성서 내러티브의 다양성과 확대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게 할 것이다.¹²

-
- 9 강병창, “내러티브의 상호매체성과 트랜스매체성”, in: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내러티브와 매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15.
- 10 Irina O. Rajewsky, *Intermedialität* (Tübingen: Francke, 2002). 매체 조합은 오페라나 영화처럼 한 작품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매체가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고 매체 융합은 소설의 영화화 혹은 연극의 오페라화와 같이 한 매체에 있던 작품이 다른 매체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체 간 지시는 한 매체의 작품이 다른 매체 자체 혹은 그 다른 매체의 장르나 작품을 다루거나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강병창, “내러티브의 상호매체성과 트랜스매체성”, 15-16.
- 11 강병창, “내러티브의 상호매체성과 트랜스매체성”, 17.
- 12 성서 본문이 예술의 형태를 통해 문화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쪽으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작품 속에 나타나는 구약성서의 여성들에 대한 여성신학적 관점의 연구는 한 사회와 시대가 다양한 문화적 형식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성서적 사건과 인물들을 표현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J. Cheryl Exum, *Plotted, Shot, and Painted: Cultural Representation of Biblical Women*, 7-8.

3. 이스라엘 공동체와 입다의 딸의 죽음

사사기의 전쟁 내러티브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야웨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 →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넘겨줌 →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주님께 부르짖음 → 야웨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다.¹³ 대사사로서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중심부(삿 3:7-16:31)에 위치해있고 위의 패턴을 따르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특징들을 통해 구분된다. 이스라엘의 악행의 결과로 발생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갈등(삿 10:6-18)이라는 신학적, 정치적 상황은 입다의 등장을 준비하지만 내러티브는 입다의 개인적, 가족적 관계와 계약이라는 복잡하고 다중적 상황과 연결되면서 더욱 큰 긴장 속에서 결론을 향해 진행된다.

입다 이야기 속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입다와 다양한 상대들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¹⁴ 특히 입다와 암몬 족속의 왕과의 대화가 결렬되자(삿 11:12-28) 입다는 야웨 하나님과 대화한다. 전쟁을 앞두고 야웨의 영이 비로소 입다에게 임하며¹⁵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이 평화(shalom) 가운데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¹⁶ 자신의 집에서 나와 입다를 맞이하는 자를 야웨께 번

13 이 패턴은 삿 2:11-19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며 그 뒤에 이어지는 개별적인 사사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삿 3:7-11(웃니엘), 삿 3:12-30(에훗)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0 (2021), 132-134, 각주 2)

14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 Sup.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73-74.

15 하나님이 ‘야웨의 영’(삿 11:29)을 보내주신 것은 입다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이고 그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 렌트 버틀러, 조호진 옮김, 『사사기』(서울: 솔로몬, 2011), 692. 원제는 Trent C. Butler, *Judges*, WBC 8, (Nashville: Thomas Nelson, 2008).

16 입다가 서원한 것이 사람이었는지 동물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LXX에서는 ‘문에서 나

제로 드릴 것을 약속한 것이다(삿 11:29-31). 이 서원은 입다가 야웨께 직접 드리는 말이었지만 결국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그의 유일한 딸이 가장 먼저 달려 나왔기 때문이다(삿 11:34).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여성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삿 11:34) 축하하러 나오는 것은 분명히 관습적인 일이었다(출 15:20; 삼상 18:6).¹⁷ 놀라고 슬픔에 빠진 입다와 그의 딸의 결연한 대화는 결국 희생제물로서의 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삿 11:35-40).

입다가 야웨께 드린 서원(삿 11:30-31)과 전쟁에서 암몬에 대한 승리 보도(삿 11:32-33)에 비해 입다의 딸에 대한 보도가 더 길고 상세하다(삿 11:34-40)는 점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입다는 그의 딸이 자신을 고통스럽고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드러내면서 그가 ‘야웨께 입을 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다(삿 11:35). 반면 입다의 딸은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같은 말을 반복하여 ‘당신이 야웨께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라’(삿 11:36)고 말한다. 입다(פִּתְחָא) 이름은 ‘그가 열다(he opens)’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태를) 열다’라는 의미의 축약형일 것이고 그가 야웨께 바쳐졌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섬기게 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 입다의 이름은 그가 입을 열어 치명적인 서원을 함으로써 그의 말에 대한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⁸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의 승리는 ‘폭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¹⁹

오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단어 ‘하요체’(חַיִּים)를 직역하면 ‘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윗 글, 671.

17 J. Clinton McCann, *Judges*, 83.

18 Mikael Sjöberg,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hthah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50-51.

19 J. Clinton McCann,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82.

입다의 서원의 결과로 그의 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삿 11:34-40) 피로 물든 내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삿 12:1-6). 이것은 입다가 한 서원의 말이 실상은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었으며 용기가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control)이었음을²⁰ 분명히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다는 바로 앞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었던 아비멜렉(삿 9:1-57)과 비교되는데²¹ 그들은 둘 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여성들의 아들이었고 자기 형제들과 갈등관계에 놓여있었지만 자신들만의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아비멜렉이 힘과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반면 입다는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의무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두 사람의 운명은 한 여성과 비극적으로 얽히게 되는데 즉 아비멜렉은 한 여자에 의해서 멧돌에 맞아 죽었으며(삿 9:53) 입다는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이다.²² 또한 입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다른 소사사들이나 아비멜렉의 경우처럼 평화의 시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²³

아버지 입다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던 소녀, 입다의 딸에 대한 본문(삿 11:29-40)은 그 ‘모호성’²⁴ 때문에

20 Phyllis Trible, *Text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97.

21 기드온과 아비멜렉 단락의 신학적 주제를 야웨와 바알주의의 대결로 보는 블루돈(W. Bludorn)은 입다의 이야기가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드온과 아비멜렉 내러티브와 유사하다고 본다. Wolfgang Bludorn, *Yabweh Versus Baalism: A Theological Reading of Gideon-Abimelecj Narrative*, JSOP Sup 329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2001), 277.

22 Mikael Sjöberg,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hthah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 57.

23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 711.

24 J. Clinton McCann, *Judges*, 82, Mikael Sjöberg,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hthah*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종종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과 비교하여 해석되어 온²⁵ 입다의 딸 이야기는 실제로 딸이 희생된다는 전혀 다른 결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말 입다가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서원한 것인지²⁶ 혹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인지²⁷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또 입다의 서원을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행보²⁸라고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설부른 불신앙²⁹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딸을 원망하는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입다의 딸의 신앙을 칭찬하거나³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비판하고³¹ 인신제사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³² 그 제사를 받은 신은 아웨가 아니라 가나안의 주신 바알이라고 해석하기도³³ 한다.

그러나 입다의 딸이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전제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큰 승리와는 별개로 사사 입다 개인의 비극적인 삶과 운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 70.

- 25 Maria E. Doerfler, *Jephthah's Daughter, Sarah's S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akland, 2019), 103-107.
- 26 C. F. Burney, *The Book of Judges* (New York: KTAV, 1970), 319-320; W. O. E. Oesterly, *Judges*, ABC (New York: Abingdon, 1929), 357-376.
- 27 R. G. Boling, *Judges*, ABC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170-171.
- 28 성서 본문들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칭송한다(삼상 12:11; 집회서 46:11-12; 히 11:32).
- 29 Barry G. Webb,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s*, 54.
- 30 Phyllis Trible, *Text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106-108.
- 31 J. Cheryl Exum, "The Tragic Vision and Biblical Narrative", in: J. Cheryl Exum, ed., *Signs and Wonders: Biblical Texts in Literary Focu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9), 66-78. 안근조, "입다의 서원과 하나님의 침묵", 「신학논단」 83(2016), 225-256.
- 32 Daniel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1999), 188.
- 33 김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1 (2009.7), 29-51. 임신호, "입다의 인신제사(삿 11:29-40)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평가", 「장신논단」 50/1(2018), 11-33.

명에 대해 그리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는 또 다른 지점은 바로 공동체의 침묵이다.³⁴ 이러한 침묵은 이전에 자신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행했던 수많은 대화와 협상과 완전히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암몬의 군사적 위협에 길르앗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협상하고 부탁한다. 출생의 배경 때문에 입다를 미워하고 그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일을 방관하고 도왔던 장로들은 이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입다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장관’(삿 11:6,9)과 ‘머리’(삿 11:9,11)로 삼는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그들은 입다의 딸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³⁵ 과연 이 서원은 아버지 입다의 사적이며 내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윤경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에 따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적, 외적 모방 위기, 즉 길르앗의 아들들과 배다른 아들 입다 사이의 모방 위기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의 모방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입다의 딸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지적한다.³⁶ 입다의 딸의 죽음은 아버지나 야

34 푸월은 입다의 딸의 죽음,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인신제사를 말리고 딸이 희생되지 않도록 돕는 인물들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한다. 대니 놀란 푸월, “사사기”,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엮음,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여성들을 위한 성서주석-구약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02. 원제는 Danna Nolan Fewell, “Judges”, C. A. Newsome and S. H. Ringe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임신호 또한 공동체의 침묵을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죄로 규정하고 사사기의 신학적 통일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본다. 임신호,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제22권 1호 (2016.3), 45-46, 53-54.

35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침묵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희생을 막기 위해 나선 사울 공동체의 개입과 상반된다. 하경지는 사울공동체의 개입이 요나단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왕인 사울 왕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사울 왕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경지, “입다 공동체(삿 11장)와 사울 공동체(삼상 14장)의 비교 연구”, 『문학과 종교』 제 25권 4호(2020), 154-156.

36 이윤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구약논단』 제19권 3호(통권 49집), 2013년 9월, 96-122.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과 맞바꾼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전쟁의 승리로 인한 즐겁고 떠들썩한 축제 대신에 눈물과 비탄으로 가득 찬 희생제사가 행해진 것은 소녀의 죽음이 갖는 공적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신제사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입다의 딸이 무남독녀, 즉 입다의 유일한 딸이었고(삿 11:34)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죽는다는 사실이 세 번이나 언급(삿 11:37,38,39)된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이 희생제물이 되어야한다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큰 슬픔, 근심, 죄책감을 가져오게 했고³⁷ 어린 소녀라는 사실은 죽음으로 바쳐질 희생 제물의 귀중함, 순수함, 완전함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서 본문은 입다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삿 11:39)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죽음을 완벽하고 비극적으로 만든다.³⁸ ‘처녀’ 혹은 ‘소녀’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틀라(בתולה)는 육체적인 처녀를 의미하나 아직 아내와 어머니의 의무를 갖지 않은 결혼 적령기의 여자에게도 사용되는 말이다. 사람의 나이와 자리는 인생의 주기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일반적으로 여자는 특정한 통과의례를 통해 딸로서의 자리/위치를 끝내고 성인 여성의 의무로 가득찬 새로운 위치에 이르게 된다.³⁹ 그러나 입다의 딸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아버지의 딸로서 죽게 된 것이다.

현대 정치사에서도 어린 소녀의 죽음이 그 사회를 집결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울분과 저항을 일으키는 시작점으로 작용하는 예를

37 트렌트 버틀러, 『사사기』, 699-700.

38 그러나 퓨월은 입다의 딸이 한 남자, 즉 아버지의 거래와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자발적인 희생물로 먼저 뛰어 나갔으며 죽음의 상황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너 놀란 퓨월, “사사기”, 200-201.

39 Susan Niditch,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34.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불의한 힘과 폭력에 의한 어린 소녀의 죽음은 승고하게 여겨진다. 그것은 공분을 일으켜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질서와 방향으로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다. 일제 치하의 유관순의 죽음이 그러했으며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이 그러했다.⁴⁰ 늙은 남성이나 완숙한 여성이 아니라 ‘어린 소녀’는 이중적으로 약자의 지위를 대표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권리와 위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소녀의 이른 죽음, 어른 남성들과 권력체계와 조직을 갖춘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대표적, 비의도적, 비자발적 죽음의 의미는 안타까움과 책임감과 공명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입다의 딸 이야기는 소녀의 죽음 이전에 친구들과 산위에서의 40일간의 애곡행위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4일간 애곡하는 관습을 기록한다. 비록 이스라엘 왕국시대나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에서 그러한 축제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⁴¹ 이 애곡제의는 입다의 딸에게 가해진 폭력의 부당성을 공동체 안에서 되새기고 폭로하는 기능을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폭력에 대해 되풀이하여 말하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데⁴²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무고한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해 침묵한 공동체는 이를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상기하고 기억해야 했던 것이다.

한편, 뒤머는 문학비평적 방법을 통해서 11장 29-40절 본문을 입

40 김춘수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의 전제가 되는 헝가리의 반소련 저항운동에서 15세 소녀의 죽음이나 이란에서 반정부시위 도중 총탄을 가슴에 맞아 숨진 16세 소녀 네다의 죽음의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41 겔 8:14; 속 12:11의 애곡제의는 이방신들과 관계가 있다. J. Alberto Soggin, *Judges* (London: SCM Press, 1981), 217.

42 이윤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115-116.

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부분(삿 11:29, 32-33)과 입다의 서원과 딸의 희생 이야기(삿 11:30-31, 34-40)를 구분하고 뒷부분을 이피게네이아의 비극을 알고 있는 저자가 페르시아 시대 말이나 헬레니즘 초기 시대에 삽입한 것으로 보며 서원, 인신제사, 직접적 하나님의 개입 등에 관한 신명기 신학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³ 입다의 딸 이야기는 전도서 5:4-5의 격언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사사기의 입다 이야기에 입다의 딸의 희생 이야기를 삽입하여 입다를 덜 영웅적으로 보이게 하며 용감한 입다의 딸과 대비를 이루게 함으로써 신명기 신학에 도전한다는 것이다.⁴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입다의 딸 이야기와 비교될 수 있는 이피게네이아 비극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해석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것은 입다의 딸 이야기에 대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이해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4. 죽었지만 살아난 이피게네이아

이피게네이아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의 비극 들 중에서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 에우리피데스의 ‘엘렉트라’에서는 이피게네이아가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져 죽은 것으로 나타난다.⁴⁵ 특히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오레스테이

43 다의 딸 이야기는 신명기 신학의 가장 핵심 부분인 출애굽 전승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징벌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신명기 신학의 특징이 이 부분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신명기 신학에 대한 비판이자 거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omas C. Römer, “Why would the deuteronomists tell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37.

44 윗 글, 38.

45 김기영, 『그리스 비극의 영웅세계: 비극 주인공의 전형과 모범 연구』 (서울: 도서출판 길, 2015), 387.

아'(Oresteia) 3부작에서는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이 전제가 된다. 아테네의 왕 아가멤논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키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을 살해하며 그들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아버지를 위한 복수로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살해한다. 계속되는 가족 살해의 동기와 출발이 바로 이피게네이아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들마다 약간씩 차이점을 보이는데 즉,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아버지 아가멤논의 서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신탁으로 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 때문에 명령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피게네이아의 운명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실제로 그의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녀를 대신해 다른 짐승이 바쳐지고 살아난 이피게네이아는 여신에 의해 구출되어 처녀 사제로 일하게 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패턴은 BC 5세기 에우리피데스의 비극들에서 각각 나타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 입다의 딸 이야기와 다른 점은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이후 딸의 죽음을 이유로 어머니이자 아내인 클뤼타임네스트라가 남편 아가멤논을 살해하고 그들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 살해에 대한 복수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가문의 비극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타우리케의 이피게네이아'에서는 이피게네이아 대신 암사슴이 희생되었으며 이피게네이아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데려가 인간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타우리케에서 사제로 살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피게네이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전통은 '퀴프리아'의 신화를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⁶

타우리케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탈취해 와서 아테네인들의

46 윗글, 389.

도시를 세워야 한다는 아폴론의 새로운 신탁을 받은 오레스테스는 타우리케로 가며 거기에서 사제로 살고 있는 이피게네아를 만나 도움을 받고 그리스로 함께 돌아온다. 아테네의 국가건설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이피게네아를 살려낸 것이다.⁴⁷ 본래 이피게네아의 희생은 아버지 아가멤논과 도시국가 아테네의 승리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를 위해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인 남성들은 이피게네아의 희생을 독촉하거나 침묵으로 방관한다. 이 점에서 입다의 딸의 희생에 대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침묵하는 것과 동일하다.

반면 에우리피데스의 또 다른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아’에서 이피게네아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소식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아버지에게 피력하다가 갑자기 영광의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말한다. 사실상 가부장적 공동체에서 소외된 여성으로 희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진영에 동화되어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어머니에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작가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바라는 남성중심의 영웅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⁸ 또한 이피게네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가멤논과 그리스 병사들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장치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병사들은 전쟁에 출전하기에 적당한 바람을 얻기 위해서 이피게네아의 죽음을 간절히 바랐는데 이피게네아 스스로 희생제물을 자처했고 그리스 사람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해달라고 함으로써 면죄부를 얻게 된 것이다.

47 김덕희,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비극의 세계: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라신 비극 속의 이피게네아”, 『프랑스학연구』 제29권 (2004), 9-10.

48 윗 글, 11-12.

뿐만 아니라 이피게네이아는 죽음의 순간에 암사슴으로 대체되어 ‘죽었고 동시에 되살아났다’고 말한다. 아가멤논 역시 이피게네이아는 신의 곁으로 갔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축복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이피게네이아는 비극적 희생물이 아니라 축제같은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는 타우리케의 신전에서 사제로서 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이피게네이아의 죽음에 대한 그리스 공동체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피게네이아의 죽음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희생은 윤리적으로 부당한 죽음이기 때문에 신탁이나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희생의 폭력성을 은폐하려 한다.⁴⁹ 그러나 트로이를 얻기 위해 무고한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키는 아가멤논을 바라보며 그리스 관객들은 신탁으로 주어진 요구가 자신들의 숨겨진 야망과 동일한 것임을 알고 함께 갈등하고 고통스러워 했을 것이다.⁵⁰ 그렇기에 이피게네이아가 결국엔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으로 변경, 이해 혹은 해석함으로써 그들 또한 죄책감을 덜고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17세기 프랑스 극작가 장 바티스트 라신(Jean Baptiste Racine) 또한 이피게네이아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공동체 내부에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탁과 명분의 형태로 주어진 그들의 욕망, 즉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와 도시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는 아가멤논의 딸이 아니라 헬레네와 테세우스의 숨겨진 딸인 또 다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킴으로써 이후의 복수를 차단시키고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희생제사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이다. 에리필(Eriphile)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이피게네이아

49 아리안 에슨, 류재화 옮김, 『신화와 예술』 (서울: 청년사, 2002), 485-486. 원제는 Ariane Eissen, *Les Mythes Grecs* (Paris: Éditions Berlin), 1993.

50 김덕희,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비극의 세계”, 14.

는 공동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밀결혼에서 출생하여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이며 고향을 멸망시킨 아킬레우스에 대한 모순적이며 우발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자신을 아끼는 미모와 덕성을 갖춘 이피게네이아를 질투하고 파멸로 몰아넣는 여자로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을 대체할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⁵¹ 에우리피데스가 이피게네이아의 죽음을 신비화시켜 그 사실을 은폐했다면 라신은 이피게네이아와 비슷하면서도 관객들이 혐오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적절한 희생양’을 만들었고 관객들은 그것을 통해 무고한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⁵² 그들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족주의, 법치주의, 국가주의를 지탱하고 옹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³

5. 소녀의 희생에 대한 매체적 확장

사사기의 입다 이야기와 그리스 비극의 이피게네이아 이야기는 아버지의 권위와 정당성,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희생된 젊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비극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변형된 것처럼 입다의 딸 이야기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석되었고 그 해석되는 과정에서 다른 매체와 해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피게네이아와 마찬가지로 입다의 딸인 소녀의 희생적 죽음은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공동

51 윗 글, 15-19.

52 희생의 기능은 내부의 폭력을 진정시키고 분쟁의 폭발을 막는데 있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2003개정판), 28. 원제는 René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e* (Grasset & Fasquelle, 1972).

53 김덕희,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비극의 세계”, 19-20.

체는 침묵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으나 성서는 소녀의 희생을 기록하고 반복적인 애도의 관습으로나마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슬퍼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녀는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다양한 형태의 버전으로 해석되고 변형되고 설명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입다’에서 입다의 딸은 이피스(Iphis)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⁵⁴ 그는 희생을 당하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짐으로써 그리스 비극과의 상호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사사기에서는 이름없이 등장하는⁵⁵ 입다의 딸의 이름이 ‘이피스’로 언급된 것은 ‘이피게네이아’(Iphigeneia)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다의 딸이 이피스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극에서 더욱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피스의 운명은 이피게네이아의 운명과 역할과 너무나 유사하다.⁵⁶ 오라토리오 ‘입다’는 성서 본문의 ‘모호성’을 극적인 장치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입다의 딸 이피스, 그리고 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입다의 아내 스토리지(Storge), 이피스의 약혼자 하몰(Hamor)이라는 주요 등장

54 사사기에서 이름없이 등장하는 입다의 딸은 AD 1-2세기 경 위(僞) 필로(Pseudo-Philo)의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LAB)에서는 실라(Seila)라고 불린다. Maria E. Doerfler, *Jepthah's Daughter, Sarah's Son*, 105. 실라는 ‘바쳐진 여자, 혹은 제물로 바쳐진 여자’라는 뜻으로 아버지 입다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희생제물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기를 자처한다. 이에 하나님은 또한 실라가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한다. 채은하, “주후 1세기 요세푸스와 무명의 필로가 전해주는 성경의 여성들: 드보라, 한나와 입다의 딸”, 『한국여성신학』 제 86호(2017), 101-103.

55 희생자의 이름없음은 그를 한 인격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그의 고통에 공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일 수 있다.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나는 여성 성폭력 사건 연구에서 임효명은 성폭력의 대상을 이름도 없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여성 혹은 여성들로 서술하는 사사기의 언어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성폭력 조력자들의 의도라고 주장한다.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8권 제1호(2022.3), 201-203.

56 Mikael Sjöberg,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thah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 135-137.

인물들은 대화를 통해 신학적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⁵⁷ 성서에서는 침묵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를 보내 이피스를 구원한다. 마지막에 이피스는 아버지의 서원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지만 그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극에서도 이피스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신제사의 가능성과 공동체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다의 딸 본문에 대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해석들, 즉 실제로 입다의 딸이 죽지 않았다거나 다른 신에게 바쳐졌다고 하거나 혹은 입다를 비난하거나 입다의 딸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됨을 수용했다거나 두 달이나 되는 애곡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해석들은 구약성서 안에 나타난 인신제사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인간들과 공동체 집단의 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며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의도들과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한 관심과 영향이 높아진 때에 특히 구약성서의 사사기에 나타난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의도와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서의 본문은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들 만이 그 본문의 난해함과 모호함을 풀고자 노력하지만 비슷한 모티브의 그리스 비극 속에 나타난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들은 작품의 저자들은 물론 그 사건을 읽고 듣고 재현된 연극으로 보는 관객과 공동체가 한 소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아주 잘 나타내준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중세 이후 문학과 미술 작품의 대표적인 주제

57 윗 글, 146-148.

었는데 유럽 사회에서도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집단적 죽음을 배경으로 죽음의 마카브르(macabre of death) 라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모티브는 죽음의 무도(dance of death)인데 이것은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문학, 미술, 음악, 영화의 영역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었다.⁵⁸ 그 중에서 입다의 딸 그리고 이피게네이아의 희생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Matthias Claudius)가 1775년에 남긴 대화체의 시작품 ‘죽음과 소녀’(Der Tod und das Mädchen)이다.⁵⁹ 클라우디우스의 시 ‘죽음과 소녀’에서의 대화양식은 인간 군상의 한 전형으로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선택하여 음산한 죽음과 대비시킴으로써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죽음의 무도의 메시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무도 전통에서 보면 소녀의 존재는 다른 누구보다도 죽음과 대비되는데 청춘-죽음, 생명의 잉태-소멸, 아름다움-추함의 대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합이기 때문이다.⁶⁰ 소녀의 죽음은 한 시대와 사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면서 공동체에게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는 물론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58 ‘죽음의 무도’(dance with death)로 대표되는 ‘죽음의 마카브르’(macabre)는 중세 말 한 시대 전체의 사고를 표현한다고도 주장되었는데 그림에 나타나는 죽음 모티브는 이미 12-13세기에 시작되었고 14세기부터 수세기 동안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의 창궐을 배경으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마카브르 예술이란 인간의 임종과 죽음에 관련된 그림과 텍스트를 통칭하는 것으로 주로 해골, 시체, 무덤 등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들을 가리킨다. 올리 분덜리히, 김종수 옮김, 『메멘토 모리의 세계: ‘죽음의 춤’을 통해 본 인간의 삶과 죽음』 (서울: 도서출판길, 2008), 24-25.

59 이 시는 죽음을 맞는 소녀와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가려는 죽음의 사자와의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슈베르트의 가곡 및 현악 4중주 14번의 2악장을 통해서 더욱 유명해진 작품이다. 이근호, “죽음의 무도: 미술적 모티프의 문학적 수용에 관하여”, 『헤세연구』 (2011.12), 86.

60 윌 글, 89.

태와 내용으로 묘사되고 전달되어온 소녀의 죽음 모티브는 성서 본문에 나타난 한 소녀의 죽음의 문제를 시대와 사회, 공동체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언어와 매체, 인간의 의식과 사회는 서로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서의 내러티브와 다양한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매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호매체성은 성서 본문의 다양한 이해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학문 융합적인 연구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병창, “내러티브의 상호매체성과 트랜스매체성”, in: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내러티브와 매체』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3-42.
- 강후구, “사사기 1:1-2절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80 (2021), 132-168.
- 김기영, 『그리스 비극의 영웅세계: 비극 주인공의 전형과 모범 연구』 (서울: 도서출판 길, 2015).
- 김덕희,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비극의 세계: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라신 비극 속의 이피게네이아”, 『프랑스학연구』 제29권 (2004), 1-25.
- 김재구, “입다의 딸,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4/1 (2009. 7), 29-51.
- 안근조, “입다의 서원과 하나님의 침묵: 삿 10:17-11:40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논단』 83 (2016), 225-256.
- 이근호, “죽음의 무도: 미술적 모티프의 문학적 수용에 관하여”, 『해세연구』 (2011,12), 81-104.
- 이윤경,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읽는 입다의 딸 이야기”, 『구약논단』 제19권 제3호(통권 49집), (2013. 9), 96-122.
- 임신호,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본 입다 이야기(삿 10:6-12:7)의 신학적 통일성”, 『구약논단』 제 22권 제1호 (2016. 3), 38-61.
- _____, “입다의 인신제사(삿 11:29-40)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평가”, 『장신논단』 50/1 (2018), 11-33.
- 임효명, “성폭력 조력자들 연구: 사사기 21장, 사무엘하 13장, 16장 20-23절을 중심

- 으로” 「구약논단」 제28권 제1호(2022. 3), 188-230.
- 채은하, “주후 1세기 요세푸스와 무명의 필로가 전해주는 성경의 여성들: 드보라, 한나와 입다의 딸”, 「한국여성신학」 제86호(2017), 86-107.
- 하경지, “입다 공동체(삿 11장)와 사울 공동체(삼상 14장)의 비교 연구”, 「문학과 종교」 제 25권 4호(2020), 139-162.
- Baumgartner, W., “Jephtas Gelübde”, *Archiv für Religionswissenschaft* 18 (1915), 240ff.
- Block, Daniel,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1999).
- Bluedorn, Wolfgang, *Yahweh Versus Baalisim: A Theological Reading of Gideon-Abimelech Narrative*, JSOP Sup 329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2001)
- Boling, R. G., *Judges, ABC*, (Garden City, NY: Doubleday, 1975).
- Burney, C. F., *The Book of Judges* (New York: KTAV, 1970).
- Doerfler, Maria E., *Jephthah's Daughter, Sarah's S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akland, 2019)
- Dowden, K., *Death and the Maiden: Girls' Initiation Rites in Greek Mythology* (London: Routledge, 1989).
- Exum, J. Cheryl, “The Tragic Vision and Biblical Narrative”, in: J. Cheryl Exum, ed. *Signs and Wonders: Biblical Texts in Literary Focu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9).
- _____, *Plotted, Shot, and Painted: Cultural Representation of Biblical Women*, JSOTSupp. 21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Kelle, Brad E. & Ames, Frank Ritchel (edt.), *Writing and Reading War Rhetoric, Gender and Ethics in Biblical and Modern Context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 캐롤 A. 뉴섬/샤론 H. 린지 엠크,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옮김, 『여성들을 위한 성서 주석-구약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원제는 Newsome, C. A. and Ringe, S. H.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아리안 에슨, 류재화 옮김, 『신화와 예술』, 서울: 청년사, 2002). 원제는 Eissen, Ariane, *Les Mythes Grecs* (Paris: Éditions Berlin, 1993).
-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2003(개정판). 원제는 Girard, René, *La Violence et le Sacre* (Grasset & Fasquelle, 1972).
- McCann, J. Clinton, *Judge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 Niditch, Susan, *Ancient Israelite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Judg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Rajewsky, Irina O., *Intermedialität* (Tübingen: Francke, 2002).
- Römer, Thomas C., "Why would the deuteronomists tell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SOT* 77 (1998), 27-38.
- Oesterly, W. O. E., *Judges, ABC* (New York: Abingdon, 1929).
- Sjöberg, Mikael, *Wrestling with Textual Violence: The Jephthah Narrative in Antiquity and Modernit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6).
- Soggin, J. Alberto, *Judges* (London: SCM Press, 1981).
- Trible, Phyllis, *Text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Webb, Barry G., *The Book of the Judges: An Integrated Readings*, JSOTSup. 46, (Sheffield: JSOT Press), 1987.
- 울리 분덜리히, 김종수 옮김, 『메멘토 모리의 세계: '죽음의 춤'을 통해 본 인간의 삶과 죽음』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원제는 Wunderlich, Uli, *Der Tanz in den Tod* (Freiburg: Eulen Verlag Harald Gläser, 2001).
- Yee (edt.), Gale A., *Judges &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2.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검색어

입다의 딸, 희생제물, 그리스 비극, 이피게네이아, 상호매체성

[ABSTRACT]

Jephthah's Daughter and Iphigeneia: Sacrifice of A Girl in An Intermediality

Eun-Ae Lee

Ewha womans universty

This paper studi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tory of Jephthah's daughter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story of Iphigeneia in Greek tragedy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termediality' in which various cultural media, including biblical text and ancient literature, theater, music, and art, influence each other through historical and social dialogue. Examining the change and mutual influence of the common theme of the sacrifice of a girl can find not only the meaning of the biblical text, but also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its interpret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imes, society, and consciousness. A girl's sacrificial death went beyond her personal level and turned into a social and community meaning, passed down as a memory of various cultural forms, including text.

As can be found in numerous versions and variations of Iphigenia text,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Jephthah's daughter text have been made from antiquity to modernity. Namely, it is said that Jephthah's daughter was not actually dead, or that she was dedicated to another god. Or it was interpreted that Jephthah was criticized, that his daughter became a victim herself, or that the community had enough mourning period for two months. This can be explained in connection with the

www.kci.go.kr

psychological, social, and political intentions of relieving individual discomfort and community groups from guilt.

The study of how to understand a girl's death through various media using her death motifs, from ancient times to medieval times to modern times, will also affect the study of biblical texts. Because language, media, human consciousness, and society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nd influence each other, biblical narratives in various media such as various literature, theater, art, and music can show various understandings and influences of the Bible text and expand into academic convergence research.

Key words

Jephthah's daughter, sacrifice, Greek tragedy, Iphigeneia, Intermediality

투고일: 2022년 10월 20일

심사일: 2022년 11월 19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9일

www.kci.go.kr